법화종 종정·총무원장 서리 자격 논란 종식

법원,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 자격 인정
총무원장 서리 혜문스님 '직무대행자'로

9월3일 4건의 소송 관련 결정
성운·정호스님이 종정스님에
제기한 직무정지는 모두 기각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직무 방해금지는 일부 인용
법화종 논란 완전히 정리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에 대한 자격 논란이 완전히 종식됐다. 법원은 도선 스님과 혜문 스님에 대해 제기된 직무정지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을 뿐 아니라, 前 총무원장 서리 거암 스님의 (사)대한불교법화종 대표이사 자격을 중지하고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인정했다. 법화종 종정과 총무원장 자격 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종단 내부적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여러 논란도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9월 3일 법화종 현안과 관련한 4건의 가처분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그 결과 법원은 종정 도선 스님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정호 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성운 스님이 각각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두 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두 건 모두 가처분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정호 스님과 성운 스님은 종정 도선 스님이 "종정 추대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중승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1년 1월 19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종정 추대위가 만장일치로 도선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한 사실이 소명되고 △종정 추대 당시 도선 스님이 이중승적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종헌종법 상 "타종단의 법계를 향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종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정의 자격요건을 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두 스님이 "종정추대위원들이 총무원장에 의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대위원으로 볼 수 없다"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한 데 대해, "종헌종법상 종정 추대위는 당연직·선출직 추대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취지만 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정호·성운 스님)의 주장과 같이 총무원장에 의해 임명돼야만 지위를 취득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성운 스님이 "중앙종회가 2021년 3월 26일 도선 스님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했기 때문에 종정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종헌종법상 중앙종회가 종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정의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종정 도선 스님을 둘러싼 모든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 따라서 종정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한 혜문 스님에 대한 자격 논란도 종식됐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정호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정호 스님에게 부담토록 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정호 스님은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임명한 종정 스님의 자격에 문제가 있고 혜문 스님 역시 경주교구 종무원장직을 맡고 있어 부적절하다"며 "특히 혜문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라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을 명하는 등의 행위로 종단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종정 도선 스님의 자격을 인정하는 동시에 "혜문 스님이 종단의 임원인 이상 총무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경주교구 종무원장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총무원장 서리로 지명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종헌종법상 설치 근거가 있다거나 중앙종회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현재 성운 스님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부인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의 이사 직무대행자로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선임했다.

법원은 혜문 스님과 법화종이 전 총무원장 서리 거암 스님과 안정사 조실 승헌 스님, 송원 스님(정창수), 신유 스님(거암 스님의 사서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거암 스님과 신유 스님의 (사)대한불교법화종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또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혜문 스님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이밖에 혜문 스님이 제기한 구체적인 직무방해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이 종단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는 동안 집무시설 등을 이용해 종단 또는 임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청사에 대한 점거가 중단됐고 혜문 스님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는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이 현재 총무원 청사에서 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무방해의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동시에, 앞서 거암 스님과 승헌 스님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총무원 청사를 점거했던 행위가 부당했음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유의미하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그동안 종단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해종세력이 종도의 혼란을 야기해 어렵고 참담한 심경이었다"며 "이제라도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자격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된 만큼, 종단 정상화를 위해 후속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내홍으로 고통받아 온 만큼, 이제라도 법화종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헌종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며 "그간 내부적으로 발생했던 행위들에 대한 부당성을 되돌리기 위해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종도들이 제대로 종단의 현실을 보고 애종심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총무원은 9월 8일 종단 정상화를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원로회의와 전국교구원장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후속 조치 및 종단 향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생명나눔, 혈액암 환자에게 치료비 전달

9월 9일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
김흥국씨 환자대리인에게 전달



생명나눔홍보대사 김흥국 씨가 김정은 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9일 BBS불교방송에서 환자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김흥국 씨가 최수환 환자를 대신하여 참석한 고려대안암병원 김정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9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는 최수환(가명/남/55세/혈액암) 환자이다. 최수환 씨는 2013년에 한차례 혈액암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2020년에 재발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 중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대기 중이다.

최수환 씨는 고등학생 외동딸을 포함한 3인 가족의 가장이며 대리운전을 하면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달 발행하는 〈행복한 빈손〉 소식지를 통해 환자의 사연을 알렸고 치료비 300만 원을 모금하여 전달했다.

가수 김흥국 씨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트롯 투표-리매치W 앱을 통해 시즌3를 마치고 미스트롯2 팬들이 트로트 가수 이름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3에서 미스트롯2 팬들이 올린 트로트 가수는 '임서원', '김다현', '전유진'이며 후원금은 총 100만 원이다.

트롯 투표-리매치W 앱은 미스트롯2에 출연했던 가수들을 팬들이 투표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앱이다. 팬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일정 득표수 이상이 되었을 때(100만 표 당 10만 원) 시즌이 종료되고 결과에 따라 투표 받은 가수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시스템이다.

트롯 투표-리매치W 측은 "이번 시즌3에서 임서원은 시즌2에 이어서 시즌3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을 달성했으며 김다현은 지난 시즌 3위에서 2위로 올라왔고 시즌1 우승자인 전유진은 3위에 랭크되었다"면서 "가수 응원도 하며 선행까지 할 수 있는 '트롯 투표 - 리매치W'의 새로운 시즌4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트롯 투표-리매치W 기부금과 같이 이번 기부금도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예매율 80%, 11개 작품 매진 성과

제1회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폐막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 주최하며 동국대 영상대학원이 주관하는 '2021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OIBFF)'가 8월 30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번 영화제는 연꽃, 라일락, 동백, 수선화와 단편 컬렉션, 특별 프로그램- 포커스 온 미얀마 섹션별로 총 15개국 62편의 영화를 전편 무료로 상영했다.

영화제 홍보팀에 따르면 개막일을 포함한 지난 5일 동안 극장 상영은 누적 관객 1800여 명, 주요영화 사전 예매율 80%를 기록했으며, '파필리오의 부다' 외 11개 작품이 매진되는 등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불자들과 일반 관객들로부터 큰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공연장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얻은 값진 성과다.


영화제에서 티켓팅하는 불자들.

차승재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영화제 개최 기준에 맞추어 정기적 개최를 통해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고품격 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최측은 "영화제는 막을 내렸지만, 추후 전국 지역순회상영회, 청소년 영화캠프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영화제의 분위기를 이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FDA 등록 ANTI-BACTERIAL·DEODORIZATION·항균&소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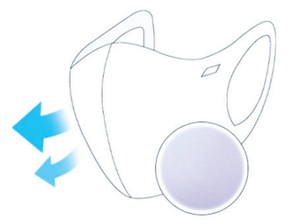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색상별로 5개 1셋트 27,500원 (개당 5,500원) / 배송비별도
※ **색상별로100개 주문시 350,000원 (개당 3,500원)**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